

2011. 31호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평협소식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번지 가톨릭회관 510호 TEL 02•777•2013 / 757•7851 FAX 02•778•7427

<http://www.clak.or.kr> E-mail: [clak@catholic.or.kr](mailto:clak@catholic.or.kr)

발행일 : 2011. 3. 15 발행인 : 최홍준





## 심는 순서

|                                    |    |
|------------------------------------|----|
| ✿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3  |
| ✿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
| >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5  |
| >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6  |
| >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7  |
| >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7  |
| >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8  |
| >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9  |
| >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9  |
| >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11 |
| ✿ 한국평협 회원 단체                       |    |
| > 가톨릭 군중후원회                        | 12 |
| > 한국가톨릭 여성협의회                      | 12 |
| > 대구 의덕의 거울 세나투스                   | 12 |
| > 마리아사업회(포콜라레운동)                   | 13 |
| > 한국 메리지 앤카운터                      | 13 |
| > MBW 한국공동체 추진봉사회                  | 14 |
| >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              | 16 |
| ✿ 평협회장 단상 / “사랑의 눈으로 아시아를 바라볼 때”   | 17 |
| ✿ 언론인 칼럼 / “함께 잘 사는 사랑의 공동체로 성숙해야” | 19 |
| ✿ 교황님 말씀 / 사순시기 담화문                | 20 |



## 알림

◎ 오는 4월 14일(목) ~ 15(금) 1박 2일로 전국 평협직원, 운동·단체 직원 연수가 부산 해운대 글로리콘도에  
서 개최됩니다.

◎ 2011년 제1차 상임위원회가 오는 5월 27일(금) ~ 28일(토) 안동교구 농은수련원에서 열립니다.



## 아시아교회 향한 발걸음 내딛기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최홍준, 담당사제 민병덕)는 지난 2월 19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마흔네 번째 정기총회를 열고 2011년 사업으로 아시아 가톨릭 평신도대회의 맥을 잇는 한국 평신도대회를 개최할 것 등을 결의했다.

최홍준 회장은 총회 인사말을 통해 고 김수환 추기경이 지난 1989년 성체대회에서 “서로에게 먹여주는 밥이 되자”고 하신 말씀을 되새기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친교의 교회상을 함께 이루어 나가자”며 큰 변화의 시기에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가짐에 대해 강조했다.

우리성가 작곡공모와 아시아 가톨릭 평신도대회 등 2010년에 한국평협이 실시한 사업보고를 듣고 전년도 결산을 확인한 이날 총회는 한국평협이 2011년 네 차례의 상임위원회를 안동교구, 원주교구, 부산교구, 서울교구에서 각각 개최하고, 먼저 각 교구평협별로 작년 아시아 가톨릭 평신도대회의 결실을 전파하는 교육을 전개한 후 주교회의 총회를 거친 다음, 그 결실을 모아 확산하는 한국 평신도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작년에 마무리하지 못한 「평협 40주년 백서」의 출판과 함께 그간 위축된 모습으로 시행되던 가톨릭대상 시상식을 평신도주일 행사와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가톨릭대상은 더 발전된 형태로 진행하기 위해 전문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운영규정을 마련하기로 해 사회 각 분야에서 드러나지 않게 작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구현하는 분들을 찾아내어 칭찬하자는 근본 취지를 더 살려나가기로 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 2010년 추계 주교회의 정기총회 이후 주교회의의 공문을 통해 지시된 한국평협의 명칭변경을 포함한 회칙개정을 세 번째 안건으로 다루고, 지난해 11월 상임위원회 이후 계속돼 온 논의의 결과로 상정된 바와 같이 한국평협의 명칭을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회칙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덧붙여 사회사도직연구소의 활동 근거 마련 등 회칙의 전반적인 검토와 수정이 요구된다는 의견에 따라 추후 회장단의 논의를 거쳐 전체적인 회칙개정을 거쳐 주교회의에 인준을 상신하기로 했다.

한편 회칙개정을 둘러싸고 입장을 달리하는 각 교구평협의 대표들의 발언이 잇따랐고, 한국평협의 담당사제인 민병덕 신부는 회의 중 발언을 통해 “이번 안건은 주교회의에서 내려온 것으로 토론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주교회의에서 평신도사도직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한 조치임을 이해해 달라”고 명칭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평협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회원으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교구평협도 나타났다.





## 최홍준 회장 일본 센다이 교구장에게 전문 보내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최홍준 회장은 최근 일본을 강타한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한 일본 센다이교구의 교구장인 히라가 테투수오(平賀徹夫) 주교에게 지난 3월 15일 전문을 보냈다. 최 회장은 전문에서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 있는 모든 분들의 고통에 함께하며, 기도하겠습니다”고 위로하고, 추후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다음은 전문의 내용이다.





##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회칙개정을 위한 특위 구성키로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최홍준, 담당사제 민병덕)는 지난 2월 12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금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주교회의의 권고에 따른 평협의 명칭변경과 이에 수반하는 회칙개정의 필요에 대해 논의하고, 단지 명칭변경뿐만 아니라 평협의 정체성과 합당한 평신도 사도직 활동의 측면에서 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회칙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서울평협은 이날 교구 내 사도직 운동·단체 대표와 본당평협의 대표, 평협 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총회에서 2010년의 사업과 결산을 승인하고, 단체사도직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과 평신도교육, 문화 복음화 사업, 아시아교회와의 연대 강화를 위한 활동 등의 주요사업을 골자로 하는 2011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검토하고, 이 중 일부 사항 수정을 회장단회의에 위임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다. 총회는 또 평협의 명칭변경을 포함한 회칙개정에 대한 논의를 더 활발히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최홍준 회장은 작년 한 해의 큰 사건들을 되짚어 상기시키며 시작한 인사말에서 “이러한 큰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표징을 발견했다면 한다”며 “변화의 시기를 새롭게 맞이하는 평협이 단체사도직을 더 활발히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더 나아가 “아시아 교회를 위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었던 아시아 평신도대회 결실을 이어받아 아시아 선교를 위한 일에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데 함께하자”고 덧붙였다.

서울평협은 이날 총회를 통해 결의한 바에 따라 올해로 다섯 해를 맞는 ‘공의회과정’, 분기별 선교교육 프로그램인 선교포럼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만남의 장인 ‘성 최경환 가정교실’, 친교와 나눔을 위한 ‘회원 피정’과 2010년에 다시 실시함으로써 호평을 받았던 ‘임원연수’, ‘임원성지순례’ 등의 프로그램과 함께 소규모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단체 연락사무소’ 운영, 단체 간 친교와 나눔의 장인 ‘운동·단체장 간담회’ 등의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 1차 선교포럼 개최

서울대교구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최홍준, 담당사제 민병덕)는 올해 4차례에 걸쳐 선교포럼을 실시하기로 하고, 지난 3월 12일 오후 가톨릭회관 1층 강당에서 교구 내 각 본당 선교분과위원, 위원장 15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1차 모임을 열었다. ‘냉담교우’ 문제를 주제로 다룬 이날 포럼은 최홍준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평신도 선교사 박종택 주교회의복음화위원회 위원과 한국평협 사회사도직연구소장인 오용석 경성대 명예교수의 강의로 진행됐다.

### 단체 소식

#### <가톨릭경제인회>

### 정기총회 개최

서울대교구가톨릭경제인회(회장 최철수)는 1월 14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제28차 정기총회를 열고 2010년도 결산과 감사보고를 들은 다음 2011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확정했다. 임기가 끝난 감사에는 박재영 감사를 다시 선출했고 회칙은 단체사무부의 인준근거에 의해 개정했다.



올해는 신심활동 강화와 회원 간 친교 확대를 위해 3월부터 11월까지(8월은 제외) 매월 셋째 주 화요일 오후 6시에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에서 월례미사를 봉헌하기로 했으며, 해외지원사업 부문에서는 2009년 과테말라, 2010년 캄보디아에 이어 금년에는 아프리카 잠비아를 지



원하기로 하고 열악한 환경에 처한 맘부 성당에 각 회원사의 생산물품과 집에서 쓰지 않는 생필품과 협찬금을 모아 전해주기로 했다.

또한 3회째를 맞이한 '이주노동자위안잔치'는 4월 24일 부활주일에 국내 이주노동자들을 초청해 함께 미사를 봉헌하고 식사를 대접하며 기념품과 생필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주노동자무료진료소인 라파엘클리닉 지원 협찬금도 모금해 이날 함께 전하게 된다. 그 외에도 불우이웃 돕기 사업을 새로 계획해 3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고 회원피정, 회보발행과 친선골프대회와 각종 친교모임 등 기존 활동은 꾸준히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날 총회는 새 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미사, 신년교례회 순서로 이어졌으며, 미사에서 담당사제 조학문 신부는 "올 한해 우리 가톨릭경제인들이 더 밝고 기쁘고 긍정적으로 살고자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가톨릭여성연합회>

#### 2011년도 제45차 정기총회 개최



서울가톨릭여성연합회(회장 권경수)는 지난 1월 25일에 명동성당 문화관 소성당에서 제45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제26대 회장으로 박은영(이사벨라) 회장이 선출됐다. 새 회장은 "선대 회장님들의 업적을 이어받아 가톨릭여성연합회가 생명운동과 나눔 실천에 한걸음 더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11년도 주요사업으로는 생명수호자로서 어머니의 역할에 주목하고 각 본당 자모회와 관계를 새롭게 맺어 여성연합회의 생명활동이 교구에서 본당으로 확산될 수 있

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명동 가톨릭회관 5층에 있는 재활용매장 '참사랑마트'와 오는 4월 개최하는 자선바자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눔 문화를 선도해가기로 했다.

#### 2월 정기월례강좌

2011년도 2월 정기월례강좌에서는 태아보호 생명문화 연구가인 이광호 박사를 초청해 "대중문화와 청소년 성(性)의식"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에서 이광호 박사는 "우리는 모두 대중매체에 익숙해져 획일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고 대중매체가 심어준 사랑 이데올로기의 희생양이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허용하는 성적 행위수준이 올라가고 있다"고 했다. 또한 청소년의 성(性)의식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시대의 대중문화 실태를 잘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톨릭여성연합회는 오는 4월 월례강좌에서도 이광호 박사를 통해 '어떤 교육적 대안이 필요한가?'에 대한 강의를 할 예정이다.



####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연극 "들에 핀 백합" 순회공연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김홍거, 담당사제 임기선)는 사순시기를 맞아 1963년 렐프 벨슨이 감독한 영화 "들에 핀 백합"(원제 Lilies of the field)을 재조명한 연극 <들에 핀 백합>을 순회공연하고 있다.



예촌문화벤처(대표 강명수 바오로)가 기획, 제작한 이 연극은 동독에서 탈출해 미국에 온 수녀들이 황량한 사막에 경당을 지으면서 이 지역의 품삯일꾼 호머와의 이야기를 주제로, 가난한 수녀들과 일꾼 호머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경당을 완성하고 이웃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내용이다.

대전 선화동성당(3월 13일)을 시작으로 대흥동성당(3월 22일)에 이어 탄방동성당(3월 24일) 전민동성당(3월 29일) 갈마동성당(4월 2일 오후 8시) 월평동성당(4월 5일)에서 각각 저녁 7시 30분 미사 후에 공연하고 있다.



이어 교구설정 50주년 추진위원회가 제작한 인천교구 50년의 역사를 반추하는 영상물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진 후 마지막으로 평협에서 준비한 따뜻한 떡국을 함께 먹으면서 새로운 도약의 50주년의 힘 있는 발을 내딛는 평신도 신년교례회를 모두 마쳤다.



###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신년교례회 주관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문기득, 담당사제 김용환)는 2011년 새해를 맞아 1월 1일(토) 오후 2시 답동문화관 3층 성령홀에서 각 지구본당 평협회장단과 교구단체장들이 함께 한 가운데 교구장 주교와 보좌주교 그리고 원로사제를 모시고 새해 인사회를 열었다.

교구장 최기산 주교는 “새해에는 모두가 감사하는 좋은 말만을 서로 오고 갔으면 한다. 또한 올 한해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의 웃음과 기쁨을 지니고 살아가길 바란다”며 “또한 작년 한해는 연평도 사건 등 남북의 갈등과 대립으로 우울하고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보냈다. 하지만 주님의 크신 축복으로 2011년에는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한해가 되기를 기도하자”고 덕담을 통해 당부했다.

###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사목평의회 연례회의 참석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김종해, 담당사제 김영호) 김종해 회장과 김귀순 부회장은 지난 2월 11일 교구청에서 열린 “2011년 대구대교구 사목평의회(의장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 부의장 총대리 이용길 요한 신부)”의 연례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연례회의에서는 4월 8일 개최 예정인 교구 제2차 시노드 개막행사와 5월에 열리는 교구 설정 100주년 기념축제 관련 행사들에 대한 회의로 진행됐다.





### 교구설정 100주년 준비위 각 분과에서 활동

올해 대구대교구 설정100주년을 맞아 대구평협 상임위 각 회장들은 총무부, 전례분과, 홍보분과, 의전분과, 행사분과, 시설분과, 재정분과로 각각 소속되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성관에서 부산평협 제36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교구장의 사목지침인 '좋은 본당 가꾸기 Ⅲ - 감동적인 전례구현의 해'에 맞춰 신호철 신부(부산가대 교수)를 초청해 '그리스도인은 왜 전례를 거행하는가? 그리고 전례 안에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주제로 특강과 그룹토의를 통해 교구장 사목지침 실천 의지를 키웠다.

### 상임위원 일동 교구장께 새배, 웃놀이

지난 2월 9일 대구대교구 평협 상임위원 일동은 월례회를 마치고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에게 새배를 드린 후 함께 웃놀이를 하면서 상임위원간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김해권 회장은 인사말에서 "기도하지 않은 신앙인은 참 신앙인이 아니며, 행동이 뒤 따르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라고 하며 기도하고 실천하는 참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했다. 파견미사를 집전한 교구장 황철수 바오로 주교는 강론을 통하여 "악에서 나오는 자기 합리화를 버리고 '예'와 '아니오'를 삶속에서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자"고 했다.



또한 한 해 동안 교회 내·외에서 평신도들의 우수한 활동사례를 발굴하여 선교, 교리교사, 사랑봉사, 잃은 양 찾기 분야에 공로가 큰 개인과 단체에 시상했다. 개인선교상을 수상한 용호성당 김영희 루시아 자매는 1년 동안 31명의 예비자를 입교하여 세례에 이르기까지 돌본 공로로 개인부문 선교 대상을 받았다. 분야별 최우수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제36차 정기총회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김해권, 지도 손삼석 주교)는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양산 정하상바로오영

△선교상(단체) : 범일성당 △선교상(개인) : 김영희 루시아(용호성당) △평신도교리교사상(단체) : 이기대성당, 가톨릭 선교마라톤회 △평신도교리교사상(개인) : 송석곤(화명) △사랑봉사상 : 중앙성당 가톨릭상우회, 용호성당 성모장학회 △잃은 양 찾기 우수사례 : 남산성당, 해운대성당



##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제40차 정기총회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서정권, 담당사제 박성열)는 지난 1월 15~16일 광주 명상의 집에서 각 본당 사목협의회 회장과 교구단위 제 단체장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0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평협은 이날 총회에서 2011년도 사업계획으로 교구장 사목교서 '전례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출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례를 거룩하게, 아름답게, 기쁘게 드리는 내용의 특강을 사목국장 박성열 신부가 해주었다.

이어 분임토의 시간에는 전례를 활성화 하는 방안과 나주 윤율리아에 대한 평신도들의 대처방안, 교구설정 75주년 기념 피정센터 건립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토의가 이뤄졌다. 주요 행사계획으로 매일미사 독서와 복음 필사 운동에 적극 참여하며, 5월 20에는 '사제와 평신도 어울림 한마당' 을, 10월 8일에는 교구민 전체가 참여하는 '선교대회' 를 갖기로 했다.



### 2월 임원회의

광주평협은 지난 2월 12일 임원회의를 갖고 단체평협 체육대회, 사제와 평신도 어울림 한마당의 건에 대해 토의하고, 또한 교구의 당면과제인 나주 윤율리아에 대한 평협의 입장표명과 피정센터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 지구별 임원연수회 개최

광주평협은 지구별 사목협의회 임원연수회를 개최해 2011년 교구장 사목교서 "전례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출발"에 대해 교구 사목국장 박성열 신부의 특강과 각 지구장 신부의 특강, 각 분과별 분임토의를 통해 각 본당의 사목교서 실천방안과 사례들을 듣고 의견을 나누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

- ▶나주지구 : 1월 23일, 나주성당, 150여 명 참석 (음악피정과 함께하는 사목회 임원연수, 강사: 신상옥)
- ▶목포지구 : 2월 13일, 하당성당, 250여 명 참석
- ▶광산지구 : 2월 20일, 쌍암동성당, 150여 명 참석
- ▶동부지구 : 2월 26일, 봉선동성당, 110여 명
- ▶북부지구 : 2월 27일, 문흥동성당, 190여 명



##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2011년 신년하례미사

전주교구 신년하례 미사와 신년 하례식이 1월 4일(화) 오전 10시 중앙성당에서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강상근, 담당사제 유장훈 몬시뇰)주관으로 거행됐다.

교구장 이병호 주교 주례와 사제단 합동으로 봉헌된 신년 하례미사와 하례식은 성직자와 수도자, 각 본당 사목회 임원, 제 단체 임원 등 8백여 명이 함께했다. 이병호 주교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모든 분들에게 하느님의 복을 빌어주고 특히 어느 때보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가 필요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자"고 인사하며 미사 전 신자들의 마음을 모으고, 강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무엇보다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빵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먼저 추구하면 다른 것은 그냥 덤으로 받게 된다"며 "정말로 우리를 행복하고, 자유롭고, 기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늘 가슴속에 새기며 실천하는 한해가 되도록 하자"고 축원했다.

이병호 주교는 하례식 덕담으로 "금년으로 만 70세가 되는데, 그동안 수많은 빛이 여기까지 나를 데려다 주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며 "부모님은 물론 형제자매, 본당 신부·수녀, 이웃 형제들, 친구와 동료, 이제는 가장 가까이에서 도와주고 있는 신부님들, 또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으면서 삶으로 신앙을 이끌어온 신자들의 빛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이라며 "빛이 되어 주신 모든 분들이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복도 받고, 은총도 받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 상임위원회 개최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는 2011년 1월 29일 평협 회의실에서 제1차 상임위원회의를 갖고, 분과별 활동보고와 2010년 세입·세출에 대한 심의, 2011년 사업계획 및 분과별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 2011년 사제·부제 서품식 준비에 적극 봉사



전주평협은 지난 1월 13일(목) 중앙 성당에서 교구장 이병호 주교 주례와 사제단 공동 집전으로 거행된 사제서품식 준비에 적극 봉사했다. 사제 6명과 부제 4명이 탄생한 이날 예식은 수품자 가족과 친지, 신자 등 15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장엄하고 숙연한 분위기에서 3시간 가량 진행됐다.

성인 호칭기도와 함께 수품자들이 바닥에 엎드릴 때 회중은 모두 무릎을 꿇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착한 목자로 살아갈 것을 간구했다. 이병호 주교는 강론을 통해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불림 받은 사제는 늘 생활 깊숙이 참된 기쁨을 간직해야 한다"며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며 기쁘게 사제직을 수행할 것"을 권면했다. 교구 사제단을 대표하여 안철문 신부(나포 길벗 공동체 담당)는 "겸손한 사제, 하느님께 효도하는 사제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강상근 회장은 "모든 교우들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양들을 잘 보살피는 사제가 되길 빈다"며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새사제를 대표해 김지광 신부는 "서품 공동성구인 '그들은 어린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이들입니다' (묵시14,4)라는 말씀을 늘 되새기며 사제의 길을 충실히 걸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병호 주교는 자식을 사제로 봉헌하여 오늘의 영광을 안겨준 새사제 부모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했다.



##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2011년도 정기총회 개최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문덕영, 담당사제 고병수)는 2월 6일 가톨릭회관 2층 대강당에서 2011년도 정기총회를 갖고 임기가 만료된 문덕영 알렉산더 회장과 김두선 요셉, 한기영 요셉 감사에 대한 유임을 결정했다.

제주평협은 이번 총회에서 2010년도 사업과 결산서를 승인하고 2011년도 사업으로 3월 7일부터 6월 20일까지

14주간의 사회교리학교를 개설해 운영토록 했으며 이외에도 평신도를 위한 특별강연회, 평신도주일 본당 총회장과 교구 단위 단체장과의 만남, 골롬반 외방선교회 신부님들과의 만남의 시간, 교구 성모의 밤 행사 등을 갖기로 의결했다.



### 주교회의 보도자료

한국천주교 주교회의는 지난 3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3월 10일(목) 종합일간지의 '유럽 종교개혁 500주년' 기사에 언급된 '면죄부' 라는 용어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면죄부”로 오역되는 가톨릭 용어 ‘대사’ (大赦, indulgence)에 관하여

● “면죄부”는 언론매체의 가톨릭 관련 기사와 세계사 자료에 간혹 언급되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가톨릭교회가 금전적 대가를 받고 신자들의 죄를 사해주었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이는 가톨릭 용어인 대사(大赦, indulgence)의 오역으로, 대사부(大赦符)가 적절한 표현입니다.

● ‘대사’는 죄가 아니라 죄의 대가인 벌을 면제해 주는 행위입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고해성사를 통해 죄를 용서받으며, 고해성사 때 사제가 주는 보속(기도, 선행 등)을 통해 죄의 대가를 치릅니다. 그러나 보속을 현세에서 완전히 실천하지 못하여 남게 되는 잠벌(暫罰)은 사후에 ‘연옥’에서 채워야 합니다. 이 잠벌을 면해주는 것이 바로 대사입니다. 가톨릭교회는 지상, 연옥, 천국에 있는 교회의 구성원 사이의 영적 교류인 ‘성인 통공’의 교리와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지체로서 가지는 연대성을 지니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대사 효력은 타인이나 세상을 떠난 영혼에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 대사는 벌을 면해주지만, 죄 자체를 사면할 효력은 없습니다. 죄를 사하는 유일한 방법은 고해성사뿐입니다. 즉 면죄부라고 표현될 수 없습니다. 대사는 교황이나 주교들이 줄 수 있으며, 대사의 조건으로 제시되는 행위는 고해성사, 영성체, 기도, 성지순례 등의 신앙 실천입니다. 이러한 실천들은 어떠한 물질적 조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 한때 대사가 교회의 수입원으로 오용된 역사도 있었습니다. 중세 유럽의 설교가들이 교회 사업의 모금을 위해 대사부(면벌부)를 남발하고 그 효과를 과장한 결과, 대사가 면벌(免罰)이 아닌 면죄(免罪) 수단으로 오인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사의 오·남용은 이미 1215년 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에서 단죄됐고, 1414년 콘스탄츠 공의회도 대사 오용의 위험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 천주교 주교회의는 비록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천주교에 대한 악의적인 용어 사용으로 부정적인 모습이 보이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반 언론과 교과서 등에서 이 용어가 잘못 사용돼 왔음을 여러 차례 지적해왔고, 이른바 ‘종교개혁’ 당시의 배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올바른 용어인 ‘대사’로 사용할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올바른 천주교 용어 사용을 위해 배포한 ‘미디어 종사자를 위한 천주교 용어·자료집’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 가톨릭 군중후원회

### 제41차 전국총회

한국 가톨릭 군중후원회(회장 서만규 베드로, 담당사제 윤병길)는 2월 16일 부산교구 푸른나무교육관에서 서울·대구·마산·부산·수원·의정부·인천·전주·청주교구 등 전국 군중후원회 회장단과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제41차 전국총회를 개최했다.



오전에 유수일 총재주교(군중교구장) 주례의 미사를 함께 봉헌하며 전국총회 일정을 시작했으며, 이 날 회의에서는 전년도에 진행하였던 청년교리서 지원사업을 1년 연장하기로 하고, 교육부대 지원 중에서 육군훈련소 성김대건 성당 예산 증액을 결정하고 9개 지부에 추가예산을 확정 배정했다.

이 날 유수일 총재주교는 미사 강론을 통해 수십 년 동안 한결 같이 기도와 물질로 군중교구의 요체인 장병들과 군중사제들에게 보내주시는 일에 헌신해 오신 군중후원회 모든 회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회원 여러분의 후원봉사가 바로 주님께 바치는 훌륭한 예배와 제사이므로 군중후원회 봉사직을 여러분 삶의 중요한 위치에 놓아주시기를 바란다”는 요청과 함께 바오로사도의 말씀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언제나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음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1코린 15,58)를 빌어 전국의 후원회원들에게 격려를 보냈다.

## 한국 가톨릭 여성협의회



### 크리스틴 데 볼머 특별 강연회 개최

한국 가톨릭 여성협의회(회장 권경수, 담당사제 민병덕)는 지난 2월 17일에 명동성당 문화관 소성당에서 2011 생명의 신비상 수상자인 크리스틴 데 볼머(남미가족연맹) 회장을 모시고 ‘자녀, 가정 그리고 21세기의 도전’ 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 날 볼머 회장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과, 가정과,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치룬 처절한 전쟁의 경험 이야기입니다”라고 말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그는 1980년대 베네수엘라 정부가 인공피임 일변도의 성교육을 의무화 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해 올바른 성과 생명, 인성 등의 가치관을 알려주는 교재 「Alive to World」(세상알기)를 만들었다. 이 교재는 현재 14개국 학교와 교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날 강연회는 참석자들과 볼머 회장의 답소 후 질의응답 시간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 대구 의덕의 거울 세나투스

###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 초청 간담회

레지오 마리에 대구 의덕의 거울 세나투스(단장 방경홍)는 지난 2월 10일 대구시내 아서원 식당에서 대구대교구



장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하성호 담당사제와 방경홍 단장을 비롯한 세나투스 간부 및 22명의 꼬미시움 단장들이 참가했다. 단장 인사와 일반 현황보고에 이어진 훈화에서 조환길 대주교는 “그동안 교구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레지오 단원들에게 치하를 보낸다”며 “앞으로 개최될 ‘제2차 교구시노드’와 ‘교구설정 100주년 행사’에도 레지오 단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마리아사업회 (포콜라레운동)

### 창설자 끼아라 루빅 3주기 미사 봉헌

포콜라레운동인 마리아사업회(남자대표 김석인, 여자대표 문원주)는 3월 13일 이 운동 창시자이며 초대 회장인 끼아라 루빅 선종 3주기(3. 14)를 하루 앞두고 서울과 대전, 당진, 전주, 춘천, 광주, 대구, 부산에서 추모미사를 봉헌했다. 서초구 방배3동 서울시 공무원연수원에서 열린 서울지역 추모미사는 1천여 명의 회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교황대사 오스발도 파달라 대주교와 대전교구장 유홍식 라자로 주교, 포콜라레운동 사제단이 공동으로 집전했으며, 미사 후에는 마리아사업회 총본부 엠마우스 회장의 추모사 낭독(문원주, 김석인)에 이어 노래와 춤, 끼아라의 글들을 낭독하며 그녀의 삶을 기억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끼아라와 사업회를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보고, 하느님께 큰 감사를 드리는 시간을 마련했다.

## 한국 메리지 앤카운터

### 제1차 한국ME 통합누리방 전국모임

메리지 앤카운터 한국협의회 (대표팀 김태성·김희숙 부부, 최준웅 신부)는 2월 2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국 ME 만남의 집에서 제1차 전국ME 통합누리방 운영위원 모임을 열고 지난해 10월 개통된 한국ME 통합누리방 ([www.mekorea.or.kr](http://www.mekorea.or.kr))을 전국으로 활성화 해 가기로 했다.

한국ME협의회와 17개 교구 지역협의회를 하나로 잇는 통합누리방은 비신자 부부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해 ME주말을 확산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다양한 부부들 이야기를 담은 주말 소개 영상을 통해 ME주말을 쉽게 이해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주말 신청을 하면 관할 교구 및 지역에서 접수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영상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부부’를 통해 우리 사회 건강한 부부들과 가정의 삶을 돌아보는 코너도 마련했다. 한국ME 문화홍보분과에서 시리즈로 제작하는 ‘다큐멘터리 부부’ 제1편은 손병두(요한 보스코, KBS 한국방송 이사장)·박경자씨 부부의 사연을 담은 ‘사랑의 저금통장’이다.

전국 17개 교구, 지역 ME협의회 누리방을 총괄하는 운영위원들의 첫 모임에서 한국ME는 각 교구의 역량을 모아 전국 16만 ME 가족들의 삶과 문화를 교류하고 부부들 고민도 상담해주는 △ME소개 홍보영상물제작 △알뜰살림장터 △부부상담실 △전자신문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 2011 상반기 총회

메리지 앤카운터 한국협의회 (대표팀 김태성·김희숙 부부, 최준웅 신부)는 2월 28~3월 1일 1박 2일간 서울 장충동 성베네딕토 피정의 집에서 상반기 총회를 열어 지난 몇 년 사이 전국적으로 ME주말수강 부부가 감소하고 있는데 대해 의견을 나누고 한국ME 쇄신과 도약을 향한 주말확대방안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ME는 1977년 국내 첫 주말 이후 34년 동안 꾸준



히 주말수강부부 및 사제, 수도자수가 증가되어 왔으며 1980~90년 초 무렵에는 6개월씩 대기해 수강할 정도로 대기 적체현상을 보였으나 최근 들어 교회와 사회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등장했고 국제적인 경제침체 요인이 주말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전국 17개 교구, 지역대표 사제와 부부, 한국ME상임위 등 52명이 참가한 이 모임에서 한국ME는 전국적인 주말감소 현상에 대해 내년 4월 열릴 한국ME 도입35주년 전국발표팀 모임을 앞두고 곧 TFT팀을 조직해 주말활성화를 위한 내적쇄신을 다지고 교구별 역량을 모아 주말확산에 온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5월 1일 이민의 날을 맞아 원주교구 이주사목담당(김한기 신부, 태장동본당 주임)에서 주관하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초청행사에 원주ME협의회 부부들이 함께하며 친교와 나눔의 시간을 갖는 등 광주·안동·수원·청주 ME협의회에서 각 교구별로 다문화가정을 위한 부부상담과 1박 2일 프로그램 등을 실시,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가정을 위한 봉사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모임 첫날 교구별 현황보고에서 대표팀들은 각 본당을



순회하며 ME홍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이날 시사회를 가진 주말홍보다큐영상의 적극적 활용으로 주말소개모임에 적극활용 본당별 소개모임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국ME가 최초로 자체 제작한 ‘우리부부이야기’ 다큐 영상물은 극작가 오재호(빈첸시오)씨, 방송인 이기상(야고버)씨, VJ 박문식(스테파노)씨 등 ME가족들로 구성된 전문 미디어 제작팀이 참여해 이뤄졌으며 손병두(요한 돈보스코, KBS 이사장) 박경자(올리안나) 부부 등 사회적으

로 지명한 부부와 보통사람들의 ME를 통해 새롭게 변화된 삶을 소재로 다루어졌다.

한국ME는 1977년 첫 주말이후 부부 8만여쌍, 사제 1425명, 수도자1779명이 등 17만명(2010.12.31현재) 이 ME주말을 체험했다.

## MBW 한국공동체 추진봉사회

### 동계 전국끈비벤자 개최

M.B.W(Movement for a Better World) 한국공동체 추진봉사회(Community Animation Service of Korea)는 지난 2011년 1월 3일부터 6일까지 3박 4일 동안 눈싸인 전주교구 천호피정의 집에서 정례 모임인 동계 전국 끈비벤자(convivenza: ‘함께 산다’는 뜻)를 가졌다. 작년 8월 대구대교구 한티피정의 집에서 가진 하계 전국 끈비벤자에 이어 개최된 이번 모임에는 서울, 수원, 원주, 안동, 대구, 전주, 광주교구에서 사제 12명과 수도자 1명을 비롯한 평신도 23명이 함께하여, M.B.W의 기초문헌인 『우리시대의 영성』을 주제로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쇄신의 여정에 대하여 묵상했다.

이번 묵상에서 사용한 문헌인 ‘새 번역 우리시대의 영성’은 1987년 이탈리아 그룹이 만들어 사용해 왔던 기존의 과정을 시대의 징표 읽기에 대한 새로운 성찰과 추진회(Promoting Group)들의 다양한 경험을 반영하여,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 쇄신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목자나 신자들에게 공동체 영성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1997년에 이탈리아에서 개정한 영어문헌을 번역한 것으로, 전체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시대의 징표 읽기’에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과 「하느님 나라」의 이해를 바탕으로 「복음적 판단」을 통한 「일치의 필요성」에 대한 <자각의 단계>이며, 2부는 「교회 성화 안에서 개인과 그룹의 쇄신」을 유도하고자, 「친교의 신비인 교회」 「신앙애의 삶」 「성화의 길」 「사랑의 봉사」 「일치와 형제애」에 대한 <회심의 단계>이다. 그리고 3부는 「교회의 존재이유와 사명」 「사목적 계획」 「본당쇄신의 여정」 등을 통한 「교회와 사회의 공동체적 쇄신」의 <실천



단체)로 각 단계별 소주제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발표 진행은 전국 팀(National Team)을 중심으로 기존의 기초과정 영성에 근거하여 기존의 문헌과 새로이 번역된 문헌의 내용에 대한 비교분석과 그룹 활동을 통하여 전 과정의 연결고리를 중심으로 구조화를 꾀했다.



둘째 날인 1월 4일의 헌신미사가 끝난 후, 봉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천호성지를 방문한 전주교구장 이병호 빈첸시오 주교는 M.B.W의 “일치의 공동체 영성을 통한 교회의 쇄신”에 큰 관심과 기대를 드러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후 “사랑의 십자군”을 창시해 1948년 교황 비오 12세에 의해 평신도 단체로 승인되도록 공헌하신 M.B.W의 창시자 리카르도 롬바르디(Ricardo Lombardi) 신부의 일대기를 다룬 DVD 영화를 관심 있게 지켜봤으며, 다음 날 화산의 경천호수 근처 봉어찜 전문식당에서 회식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기도 했다. 저녁 회식 후 이어진 아가페에서는 웃놀이를 하면서 봉사자들끼리 친교를 다지었고, 이어 포항 죽도성당 신자들이 보내 준 과메기 빨랑카는 공부에 지친 몸과 마음에 여유를 가져다주었다.

나흘째 마지막 날에는 각 교구별로 2010년도 활동보고 및 2011년도 활동계획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이어 각 영역(사도직, 양성, 대내봉사, 대외봉사) 별로 팀장이 중심이 되어 2011년도 전국 팀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총회를 가진 다음 파견미사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이처럼 전국 끈비벤자는 다음과 같은 M.B.W 한국공동체추진봉사회 목적과 사업을 구현하기 위하여 매년 1월과 8월에 각 교구의 봉사자들이 모여 다짐을 하는 기회를 가지는 모임이다.

1) 비오 12세 교황의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선언’

(1959.2.11)을 바탕으로 일치의 공동체, ‘하느님나라’ 구현을 위하여 헌신한다.

2) ‘하느님나라’의 씨앗인 교회의 쇄신을 위하여 이 시대의 지침인 바티칸 제2차공의회 정신을 연구개발·확산하는데 이바지한다.

3) ‘시대의 징표’에 응답하는 영성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여 교회쇄신에 앞장선다.

4) 회원들의 공동체 삶을 통하여 일치의 영성을 체험하고 영적 쇄신을 도모한다.

이상과 같은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 각 교구별로 매월 끈비벤자를 가지며, 주로 교회의 올바른 역할과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영성교육과 보급에 중점을 두는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그 어느 해와 달리, 8월 16일~18일[2박 3일] 동안 대구대교구 한티 피정의 집에서 예정된 양성회원들을 위한 하계 전국 끈비벤자 및 4년 주기로 전 세계의 Local Group이 참석하여 M.B.W 운동의 성과와 과제에 대하여 협의하는 로마 세나클(Cenacle)이 9월 중순에 예정되어 있으며, 나아가 각 교구의 쇄신을 위한 프로젝트도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M.B.W. 한국공동체추진봉사회의 역동적인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기대된다.

금년 정초 시무식날에 흰 눈 쌓인 천호산 골짜기 천호성지의 고즈넉한 피정의 집에서 가진 3박 4일의 M.B.W. 동계 전국끈비벤자는 전국의 P.G(봉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일치된 마음으로 진지한 토론과 묵상과 기도를 전개하였으며, 개인 영성의 성장을 통해 공동체 영성을 심화시킨 멋진 체험의 나날들이었다. 이런 체험을 토대로 공동체 영성을 통한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교회의 쇄신’을 위해 헌신하고자 다짐했다.





##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

### 상임이사회 1/4분기 이사회 개최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회장 정해정) 상임이사회 1/4분기이사회가 1월 22일 오후 2시에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112호실에서 있었다. 각 교구이사회 회장 1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2011년 예산(안)과 사업계획 등에 관하여 논의했다. 한편 이날 정기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청주교구이사회에 노후화된 시설지원금으로써 달라며 3000만원을 전달했다.

### 2010년도 한국이사회 감사

지난 2월 8일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 사무국에서는 2010년 회계 연도 감사가 있었다.

오는 3월 26일 대구대교구 제1대리구청 강당에서 정기총회가 개최되며, 총회에서는 지난 1년 동안의 활동보고와 당해(當該) 연도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논의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의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오는 28일부터 2011년 춘계 정기총회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2011년 춘계 정기총회를 오는 3월 28일(월)부터 4월 1일(금)까지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개최한다. 주교회의 총회는 국내 16개 교구의 주교 전원이 모여 전국 차원의 사목 임무를 논의하는 주교회의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연 2회 정기총회를 연다. 2011년 춘계 정기총회의 주요 일정과 안건은 다음과 같다.

#### ◎ 주요 일정

- 3월 28일: 주교 세미나 - '북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 (민족화해위원회 임강택 전문위원 강연)
- 3월 29일: 본회의 개막(9:30, 교황대사 오스발도 파딜랴 대주교 참석)
- 3월 30일: 교황 선출 기념미사(19:00, 서울 명동성당)
- 4월 1일: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정기총회 결과 발표

#### ◎ 주요 안건

-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소장 주교 선출
- 세계 주교 대의원회의 제13차 정기총회 대의원 선출
- 한반도 평화 기원미사 봉헌 계획 심의
- 「한국 천주교 청년 교리서」(시안), 「어른 입교 예식」(안) 심의
- 「한국 가톨릭 고등교육기관 규정」(수정안) 심의
- 「한국 가톨릭 학교 교육 지침서」(시안) 심의 「한국 가톨릭 유치원 교육 지침서」(시안) 심의

한편 교황 베네딕토 16세 선출은 2005년 4월 19일에 이뤄졌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춘계 주교회의의 기간 중에 교황선출 기념미사를 봉헌하고 있다.



## 평협회장 단상 - “사랑의 눈으로 아시아를 바라볼 때”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평신도들의 공의회’, 또는 ‘평신도들을 위한 공의회’라고 말하는 이가 있을 정도로 지난 세기 후반 이후 평신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한국가톨릭교수협의회(회장 박영석 교수)가 마련한 2011년 ‘사순절 대피정 세미나’에서 주한 교황대사 오스발도 파딜라 대주교가 세속화된 현대사회에 우려를 표명하고, 이럴 때일수록 평신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새겨 들을 일이겠습니다.

오스발도 파딜라 대주교는 “평신도는 교회에서 침묵의 방관자가 아닌 공동 책임자”라며 “교회는 주교와 사제들뿐 아니라 평신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아시아는 다양한 문화의 탄생지이며, 현재 전대미문의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변혁을 겪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아시아 평신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위대한 사명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하느님이 주신 생명의 은총을 보호하고,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직장에서 정의와 진실, 연대의 모범으로 사회에서 함께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1만여 명의 순교자를 낸 이 땅에서 “교회의 시작을 평신도가 이뤄낸 만큼 한국 가톨릭 신자들은 교회 안에서 특별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세속사회에서 혼인과 가정, 문화의 복음 증진 사명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월 11일 금요일 이후 도호쿠(東北) 지방을 비롯한 일본열도 곳곳을 강타한 대지진과 쓰나미, 원자력발전소 관련 시설 폭발 등으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잃은 일본과 일본 국민들에게 세계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온 세계가 물심양면으로 도움의 손

길을 보내고 있으며, 한국 가톨릭교회 또한 주일 특별헌금을 실시해 신자들의 정성을 모은 교구가 있는가하면, 여러 각도에서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저희 한국평협 또한 재난 당한 그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인사를 보내면서 그들과 한 마음으로 고통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이들을 도와야 할 이유는 참으로 많습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첫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는 “사랑 - 카리타스 - 은 언제나 필요하며, 가장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필요한 것”(28항)이라면서 이렇게 일러줍니다. “사랑의 봉사가 필요 없을 만큼 정의로운 국가 질서는 없습니다. 사랑을 제거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인간도 그렇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위로와 도움을 찾는 고통은 어디에나 있기 마련입니다. 외로움도 어디에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웃 사랑의 형태를 통한 도움, 곧 물질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도 어디에나 있습니다.”

이 문헌은 또 29항에서 “정의로운 체제의 구축은 교회의 직접적인 의무가 아니라 이성을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정치계의 의무”라고 말하면서 교회는 이 일에서 간접적인 의무를 지니고 있고, 정의로운 사회 질서를 위해서 일할 직접적인 의무는 평신도들에게 속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으로서 평신도들은 개인 자격으로 공공생활에 참여하도록 부름 받기 때문에 “경제, 사회, 입법, 행정, 문화 등 수없이 많은 여러 분야에서 조직적으로 제도적으로 공동선을 증진시켜야 하는” 참여 의무를 거부할 수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교회의 사회복지 기구들도 교회의 고유한 활동(opus proprium)을 한다면서 이 문헌은 “신자들의 조직화된 활동인 사랑의 실천에서 교회가 결코 면제될 수 없으며, 다른 한편으로, 그리스도인 각자의 사랑 실천이 불필요한 상황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정의만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하며, 또 언제나 사랑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의 수요일과 함께 시작한 사순시기를 맞아, 아시아 여러 교

회에서는 특별기도회와 단식, 고행, 자선사업 등 각 교회의 전통에 따른 행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신(UCAN)에 따르면, 인구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인 필리핀에서는 마닐라대교구장 가우덴시오 로살레스 추기경이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는 아이들을 위해 사순시기 동안 단식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홍콩 교회에서는 “사랑하자. 희망을 선사하자”라는 주제 아래 젊은이들에게 중점을 둔 사순시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채식 위주의 점심 먹기, 탄산음료 마시지 않기, 텔레비전 보지 않기, 게임 줄이기, 비닐봉지 사용하지 않기 등의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대교구가 중심이 돼 “모두 힘을 모아 가난과 싸우자”라는 주제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시기 행사의 목적은 단순히 자선기금을 모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 힘을 모으면 주변의 가난한 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데에 있다고 합니다.

한편, 미얀마 교회의 사순시기 행사 주제는 조금 다릅니다. “자선과 진리 안에서 통합적인 인간 개발”을 내걸고 있는데, 미얀마 교회 사회복지기구인 카루나에서는 사순시기 동안 교리교사와 사제, 수녀들을 교육해 “인간 개발”에 역점을 둔 교구 사업에 힘을 보태게 할 계획입니다.

최근 가톨릭인 장관 살해로 떠들썩한 파키스탄 교회에서는 카리타스를 통해 각 본당에 저금통이 아닌 사순 봉투를 나눠주고, 신자 한 사람에 1루피(약 10원)씩이라도 자선기금으로 내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순절 캠페인 주제는 “가난한 이 돕기”입니다.

파키스탄처럼 네팔 교회도 사순절 봉투를 나눠줬습니다. 수도 카트만두의 일부 성당에서는 매주 사순절 특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방글라데시 교회는 “평화는 가정에서 시작한다”라는 주제로 사순시기 행사를 마련해, 신자들에게 하루 벌이를 자선기금으로 내놓도록 권장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카리타스에서는 홍보용 책자도 만들었습니다. 스리랑카 교회는 “그리스도 우리의 희망”을 주제로 정해, 올해 사순 행사를 난민,

노숙자, 과부, 고아들에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가톨릭신자가 인구의 약 10%인 한국 교회는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사순시기 담화와 사순시기 포스터를 각 교구 사회복지회(국)을 통해 배포하고, ‘사랑으로 가진 바를 나누자’라는 주제에 맞게 다양한 활동을 준비해 신자들의 의식 고양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월 15일(금요일)은 사랑의 단식재 권고일로, 주님수난성지주일인 4월 17일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공동헌금의 날로 지정했으며, 각 교구에서는 사순시기 저금통을 신자들에게 나눠주고 커피, 술, 담배를 줄여 가난한 이웃을 돕자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아시아 교회의 사순시기 행사는 “기도와 단식, 자선” 세 가지를 특별히 강조한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사순시기 담화와도 맥을 같이한다고 ‘아시아뉴스’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우리 구세주와 이루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단식과 자선과 기도를 통해 부활절을 향하는 회개의 여정이 우리가 받은 세례를 다시 발견하게 해준다”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 최홍준 파비아노

## 함께 잘 사는 사랑의 공동체로 성숙해야

몇 년 전에 "부자 되세요"라는 광고카피가 크게 유행된 적이 있었다. 서로 주고받는 인사말로까지 많이 쓰이곤 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 등에서는 '몇 억 모으기 방법' 광고 등이 성행했다. 그때 느낀 게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경제적 부(富) 하나로 집중되는구나, 하는 것이어서 걱정스러웠다. 모두가 부자 된다는 게 가능한가? '부자'라는 말에는 계급성, 상대성의 개념이 들어있다. 모두가 부자일 수가 없다는 말이다. 즉 내가 좀 나아져도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나는 부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이 기준과 가치관대로만 따지면 결국 전 국민이 끝없이 부자를 추구해도 행복한 사람은 언제나 가장 큰 부자, 단 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 어쨌건 상대적 개념은 접어두더라도 부자운동으로 부자가 늘어나긴 했는가? 결과는 아니다.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현상의 심화로 나타났다. 꼭 "부자 되세요"란 카피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인식이 상당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본다. 대기업일수록, 부자일수록 부자 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부익부가 될 수밖에 없다. 대체로 일정한 사회적 재원을 한 쪽이 이렇게 많이 가져가면 다른 쪽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바로 빈익빈이 된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인위적인 친기업, 고환율정책에 의한 수출증대, 고성장 정책을 추구했다. 그러면서 그 성장과실이 아래로 흘러내리게 하겠다고 했다. 결과는 전혀 아니다. 성장과실은 수출대기업에 거의 모두 몰려있고, 사회 전반적인 경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과거와 달리 요즘의 산업구조는 성장한 만큼 고용으로 직결되지 않는 원인도 있다. 그러나 더불어 살려는 의식의 부재가 더 큰 원인으로 보인다. 대기업들은 수익이 급증했지만, 세금 증대에는 절대 반대다. 통신요금 인하조정 등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투자를 더해야 성장이 계속된다는 주장이다. 자기만 더 잘 살겠다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 지나친 말일까? 정치인이나 관료들도 그 쪽 편에 서있는 것 같다. 대기업 세금(법인세)을 줄인다는 방침을 재검토한다는 얘기가 아직도 없는 것이 그 한 예이다. 복지 논쟁이 더 본질적 유감이다. 1인당 평균 국민소득이 2만 달러로 다시 올라섰는데도 자살은 더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 서민과 대학생 등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이다. "복지를 늘리면 안된다, 복지 때문에 망한 유럽 국가들을 보라"는 게 복지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호도다. 최근 스페인, 아일랜드 같은 유럽 국가들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복지 때문이 아니라 은행구제를 위해 정부가 빚을 많이 졌기 때문이다. 복지는 더불어 사는 것이다. 그것은 투자이기도 하다. 1970년대 의료보험이 처음 도입될 때도 같은 논리로 반대가 아주 많았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 보면 의료보험 때문에 그동안 경제성장이 어려웠던가? 아니다. 그 자체의 필요성만으로도 이제 의료보험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 어렵다. 사회가 두루 안정될 때 경제도 성장할 수 있다. 어느 한쪽만의 성장은 곧 중단될 수밖에 없다. 그러곤 후퇴로 간다. 여러 정책 실수와 실기로 물가급등의 위기를 맞은 우리 경제가 바로 그렇다. 결국 경제도 경쟁이기는 가치관의 영역이다. 바른 가치관일 때 경제도 좋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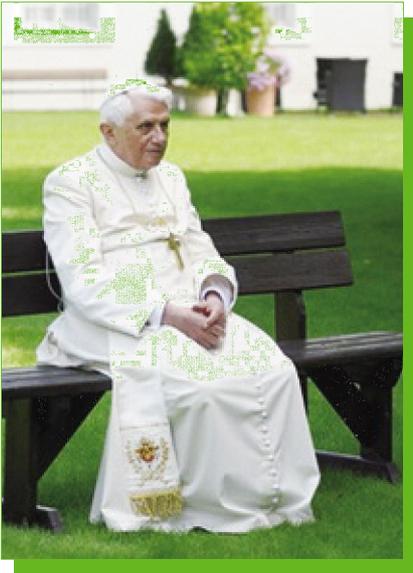
"부자되세요"가 아니라 "더불어 잘 삽시다" "함께 합시다"여야 한다. 서로 끌어줘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계층의 분화가 일어나는 조짐도 보인다. 걱정스러운 것은 은근히 배타성, 계급성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특정 지역 등에서는 그들 끼리 공부하기, 혼인하기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 자연스럽게 서로 잘 어울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든 존중하고 배려하고 함께 하는 삶 안에서 그래야 한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으로부터 누구든 서로 사랑받고 존중받을 권리를 갖고 태어났다. 그것이 삶의 본질이고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다. 시장주의나 경쟁이 안된다는 게 아니고, 그것과 함께 격려와 나눔 역시 함께 작동해야 할 본질이다. 이런 점에서 일치와 공동선을 지향하는 가톨릭교회는 혼돈과 갈등 속에 있는 우리 사회의 한 줄기 빛이다. 우선 본당과 단체에서 신앙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잘 가꾸어 나가도록 하자. 공동체 그 자체로 기쁨이자 행복이고, 나아가 사회의 성숙한 발전에 큰 밑거름이기도 하다.



이석우 클레멘스 /

서울대교구평협 홍보위원 겸 민족화해위원, 평화방송 보도국장

교황 베네딕토 16세 성하의 2011년 사순시기 담화“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되살아났습니다”  
(골로 2,12 참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순시기는 거룩한 부활축제로 나아가는 교회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전례 시기입니다. 이에 저는 여러분이 사순시기를 열심히 지낼 수 있도록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영원한 부활절에 신랑이신 분을 온전히 만나 뵈기를 기다리면서,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여 해마다 깨끗한 마음으로, 구원의 신비에 자주 참여하여 주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습니다(사순 감사송 1 참조).

1. 바로 이 생명은 이미 우리가 세례 때에 받았습니다. 그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여” 우리도 “그분 제자들이 겪은 그 기쁘고 놀라운 모험”을 시작하였습니다(주님 세례 축일 강론, 2010년 1월 10일). 바로 사도는 서간에서 이 세례로 하느님의 아드님과 이루는 유일한 친교를 되풀이하여 강조합니다. 유아세례는 세례가 참으로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밝혀 줍니다. 아무도 자기 노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지는 못합니다. 죄를 없애 주시는 하느님의 자비, 동시에 우리 삶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필리 2,5)을 체험하게 해 주시는 하느님의 자비가 사람들에게 거저 베풀어줍니다. 이민족의 사도는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할 때 일어나는 변화의 의미를 설명하고 그 목적을 밝혀 줍니다. “나는 죽음을 겪으시는 그분을 닮아, 그분과 그분 부활의 힘을 알고 그분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든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필리 3,10-11). 그러므로 세례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예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며, 이 만남은 세례 받은 이에게 하느님 생명을 주고 진정한 회개로 불려 그의 전 실존을 형성시켜 줍니다. 은총으로 시작되고 지탱된 이 만남은 세례 받은 이가 그리스도의 성숙한 모습에 이르게 해 줍니다. 세례와 사순시기는 특별한 관계로 묶여 있습니다. 사순시기는 이 구원 은총을 체험하는 좋은 시기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부들은 교회의 모든 목자들에게 “사순시기 전례의 고유한 세례 요소들”(전례헌장 109항)을 더 많이 활용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실제로, 교회는 언제나 부활 성야와 세례를 연결시켜 왔습니다. 이 세례성사를 통하여 위대한 신비, 곧 사람이 죄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새 생명에 동참하게 되며,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하느님의 영(로마 8,11 참조)을 받는 위대한 신비가 실현됩니다. 이 무상의 은총은 언제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되살아나야 합니다. 사순시기는 예비신자 기간과

같은 여정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 여정은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오늘날의 예비신자들에게도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인 삶과 신앙의 학교입니다. 참으로 그들은 자신의 전 실존을 형성하는 세례의 삶을 살아갑니다.

2. 우리가 열심히 부활절을 향한 여정에 들어서려면, 한해의 전례 가운데 가장 기쁘고 장엄한 주님의 부활 대축일을 준비하려면, 하느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보다 더 적합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이유로, 교회는 사순 시기 주일 복음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교 입문 단계들을 다시 밟아 보도록 권유하며 우리가 주님을 더욱 더 가까이 만나도록 이끌어 줍니다. 예비신자들은 새로 나는 성사를 받을 준비를 하고, 세례 받은 신자들은 그리스도께 자기 자신을 더욱 온전히 바치며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새롭고도 단호한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사순 제1주일은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인간이라는 우리의 조건을 드러내 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며 유혹을 물리치셨던 그 싸움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는 은총,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힘을 주는 은총을 받아들이도록 우리 자신의 나약함을 깨달으라는 초대입니다(『어른입교예식』, 지침 25항 참조). 이는 그리스도교 신앙이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그분과 함께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에페 6,12)에 맞서 싸우는 치열한 전투를 담고 있다는 것을 강력히 보여 줍니다. 여기서 악마는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오늘날까지도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려 하는 사람은 누구든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승리자로 나타나시어 우리 마음에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악의 유혹을 물리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의 거룩한 변모에 관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 눈앞에 보여 줍니다. 이 영광은 부활을 미리 보여주고 사람이 하느님이 된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사도들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마태 17,1) 올라가신 것처럼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이끄시어 하느님의 아들 안에서 자녀가 되어 하느님 은총의 선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받게 하십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마태 17,5). 이것은 일상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현존 안에 깊이 잠기라는 권유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날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꿰뚫는 말씀을 전해 주시고자 하시며, 거기서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하고(히브 4,12 참조) 주님을 따르겠다는 우리 의지를 다집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요한 4,7)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사순 제3주일 전례에서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나타내고 우리 마음속에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요한 4,14) 선물에 대한 갈망을 일깨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진실한 예배자들”(요한 4,23)로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오직 이 물만이 선과 진리와 아름다움을 향한 우리의 갈망을 채워 줄 수 있습니다! 외아드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물만이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유명한 말처럼 “하느님 안에서 쉬기까지” 고달프고 목마른 우리 영혼의 사막을 적셔 줄 수 있습니다. 사순 제4주일 “태어나면서부터 눈 먼 사람”의 복음은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복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요한 9,35). 태어날 때부터 눈 먼 사람은 모든 신자들의 목소리로 “주님, 저는 믿습니다.”(요한 9, 38)라고 기쁨에 넘쳐 외칩니다. 이 치유의 기적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 마음의 눈도 열어 주시고자 한다는 표지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한층 깊어지고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알아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삶의 모든 어둠을 밝혀 주시고 모든 이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사순 제5주일에는 라자로의 부활이 선포됩니다. 이 때 우리는 우리 실존의 궁극적 신비와 만나게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 너는 이것을 믿느냐?”(요한 11,25-26) 이 순간은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마르타와 더불어 진실로 나자렛의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희망을 두는 때입니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요한 11,27). 현세의 삶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루는 친교는 죽음의 장벽을 넘도록 준비시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해 줍니다. 죽은 이들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은 우리가 우리 실존의 궁극적 의미에 눈뜨게 해 줍니다. 곧 하느님께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진리가 인류 역사, 개인의 삶과 사회생활, 문화, 정치, 경제에 결정적이고 진정한 의미를 줍니다. 신앙의 빛이 없다면 온 세상은 미래도 희망도 없는 무덤 안에 갇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순 여정은 파스카 성삼일, 특히 부활 성야에서 그 절정에 이릅니다. 세례 서약을 갱신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생명의 주님이심을, 곧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날 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주님이심을 다시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되고자 성령의 활동에 응답하겠다는 우리의 굳은 약속을 다시 다짐합니다.

3. 우리는 세례성사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깊이 참여하여 우리 마음이 날마다 물질의 짐에서 벗어나게 하고 '세상'에 대한 자기중심적인 관계에서 자유롭게 해 줍니다. 그러한 관계는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마음을 열어 자신을 내어주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이심을 보여 주셨습니다(1요한 4,7-10).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십자가에 관한 말씀"은 인간을 새롭게 들어 높이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드러냅니다(1코린 1,18 참조). 그것은 가장 철저한 형태의 사랑입니다(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12항 참조). 사순 시기는 회개의 표현인 단식과 자선과 기도라는 전통적 실천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단식은 다양한 동기로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깊은 종교적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밥상을 더욱 가난하게 차려 이기심을 극복하고 은총과 사랑의 논리로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의 결핍도 견뎌냄으로써, 우리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우리 곁에 계신 분을 발견하고 수많은 형제자매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법을 배웁니다. 단식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난한 이웃들에게 더욱 마음을 열어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도 되게 하는 것입니다(마르 12,31 참조). 우리의 여정에서 돈에 집착하는 축재의 유혹에 자주 부딪치곤 합니다. 이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우선권을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소유하려는 탐욕은 폭력과 착취와 죽음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교회는 특별히 사순 시기 동안 자선을 실천하도록 우리를 일깨웁니다. 자선은 나누는 힘입니다. 그렇지만 물질 숭배는 우리를 다른 이들에게서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속이고 헛된 약속으로 현혹시켜 버립니다. 그것은 생명의 유일한 원천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 재화를 올려놓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기주의와 자신만의 일로 가득 차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고 자신을 속인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유혹은 성경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 두었다."(루카 12,19-20)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심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 갈 것이다"(루카 12,19-20). 자선 행위는 하나님의 우선권을 일깨우고 우리의 관심을 다른 이들에게 돌려,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다시 깨닫고 그분의 자비를 받아들이게 합니다. 사순시기 내내 교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풍



요롭게 들려줍니다. 우리는 말씀을 날마다 실천하고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새기면서 소중하고 필수적인 기도 방법을 배웁니다. 우리 마음에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는 세례 때 시작한 신앙의 여정을 위한 양식을 얻습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가 시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가지게 합니다. 영원과 초월에 대한 전망이 없다면, 사실 시간은 단순히 미래가 없는 지평선을 향하여 걸어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시간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마르 13,31 참조)임을 깨닫고 “아무도 빼앗지 못할”(요한 16,22) 하나님과 맺는 내밀한 친교로 들어가는 이 시간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희망,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열어 줍니다.

결론적으로 십자가의 신비를 바라보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사순시기의 여정은 “죽음을 겪으시는 그분을 닮아”(필리 3,10) 우리 삶에서 깊은 회개를 이루게 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의 바오로 성인처럼 성령의 힘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삶의 방향을 확고히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기주의를 벗어나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본능을 극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 자신을 열어젖히게 하는 것입니다. 사순시기는 우리의 나약함을 깨닫고 우리 삶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고해성사의 새롭게 하는 은총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결연하게 나아가는 은혜로운 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구세주와 이루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단식과 자선과 기도를 통하여 부활절을 향하는 회개의 여정이 우리가 받은 세례를 다시 발견하게 해 줍니다. 이 사순시기에, 우리는 세례 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모든 활동을 비추고 이끌도록 그 은총을 새롭게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더욱 헌신적으로 참되게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세례성사가 의미하고 실현하는 것을 체험하도록 부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여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신앙과 육신으로 낳으신 동정 마리아께 우리를 맡겨 드립니다. 그리하여 성모님께서 하신 그대로 우리도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합시다.

바티칸에서 2010년 11월 4일 교황 베네딕토 16세